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무사히 수료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학생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본 보고서를 성심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2. 각 항목별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주세요.
3. 사진 및 참고 가능한 기타 자료를 삽입(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개인정보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5.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양질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 및 여러분의 선·후배, 동기들의 성공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되며, 제공시 성명, 학번,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성명	학번	소속(대학,과,전공)	
강다영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텍스타일디자인전공	
프로그램	정규교환학생	파견국가 및 대학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파견기간	2021.09.08.~2022.05.11	연락처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미국은 주마다 주립대학교들이 있는데 워낙 땅이 넓다보니 한 주에도 여러 개의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Wisconsin-Stout는 여러개의 위스콘신 주립대학 중 스타우트 캠퍼스입니다. 다른 캠퍼스로는 30분거리의 UW-Eau Claire, 더 멀리에는 UW-Madison, Milwaukee, La cross 등 크고 작은 도시마다 캠퍼스가 있습니다. 스타우트는 UWS, UW-Stout 등으로 불립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구글맵으로 위스콘신 주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보다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똑같이 사계절이 존재하지만 겨울이 유난히 길니다. 제가 파견되었을 때는 11월 중순에 첫 눈이 왔고, 4월까지도 눈이 왔습니다. 3월 스프링브레이크 이후로는 겨울내내 쌓여있던 눈이 녹았고, 그 이후로 눈이 올 때는 쌓이진 않고 다음날이면 녹긴했습니다. 5월 초에 귀국했는데 4월 말쯤부터 겨우 반팔을 입을 정도로 봄 치고는 쌀쌀했습니다. 겨울을 그 곳에서 보낼 예정이신 분들은 전기담요를 아마존에서 미리 구입하신다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메노모니라는 동네는 인구 16000명 언저리인 작은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아마 스타우트 학생들일거예요. 미네소타 주, 위스콘신 주, 그리고 그 주변 몇몇 주들을 합쳐서 midwest라고 부르는데, nice midwest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한 편입니다. 백인이 주로 사는 중서부이고, 유색인종은 Hmong 족이나 저같은 교환학생, 혹은 여기 학생들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히스패닉, 흑인들을 잘 볼 수 없는 동네입니다. 마을은 지내다보면 도로나 버스로 가는 장소들은 정해져있기에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땅덩어리 넓은 미국 시골이라서 교통수단 없으면 도시로 못 나갑니다. 이걸 여기 뿐만아니라 교환학생을 가는 대부분 학교들의 공통점입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2021 Fall 학기에는 Drawing I, Introduction to Art Education, Human Sexual Biology, Typography I: Letterform을 들었고, 2022 Spring 학기에는 Typography II: System, Ceramics I, Graphic Design I, Textiles: Theory를 수강하였습니다. 드로잉, 세라믹 수업은 예술계통 쪽 학부 수업입니다. 그래서 재료만 있다면 처음 배워도 수강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라믹을 여기서 처음 다뤄봤습니다. 예술계열 학부나 전공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은 각자 구매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되지만 보통 시계탑 건너편에 있는 Mike's Art Supply store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타이포그래피 수업은 그래픽디자인 전공수업입니다. 아트에듀케이션은 이 학교에 미술교육전공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듣는 기초수업입니다. 알고보니 교환학생이 못 듣는 수업인거같은데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는지 어쩌다보니 들었지만, 수업 자체는 어려운 과제가 없지만 학기 말에 실습활동이 저에게 부담되었습니다. 나름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수강신청할 때 lecture라고 쓰여있으면 강의형 수업, lab은 전공 실습수업, discussion 수업들이 이 수업처럼 영어로 말하고 발표하고 그런 수업들입니다. 바이올리나 텍스타일 이론수업은 둘 다 렉처 수업인데 각각 교양수업, 전공이론수업이지만 공통적으로 매주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어야하고 각 수업마다 요구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꿀강의 이런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출석점수 비중은 낮지만 자잘한 퀴즈, 레포트, 수업 중 활동이 많다고 느껴서 결국은 수업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syllabus에서 강의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는 미국 학교들의 이캠퍼스같은 canvas 어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 기억상으론 개강하고 일주일 정도는 패널티없이 드랍 가능하니까 적성에 맞고 적당히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플 리스닝 공부하면서 그 7-8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새발의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멘붕도 오면서 적응 안 되었고 자책도 했었는데 역시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나름 집중하면 다 들리더라고요. 어차피 수업은 다 영어로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드는 수업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봄 학기에는 별로 없었는데 가을 학기에는 교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저녁 야외 피크닉이라던지, International Night라고 강당같은 홀에서 하는 행사라던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가게되면 담당자 다니엘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통의상 같은게 있으면 가져오라고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러한 행사를 위해 언급하는 것이더라고요. 저희 때는 의상 준비는 못 했지만 다른 나라 부스들을 보니 전통의상 가져올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행사들은 필수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국제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 말고 학교 내에서도 자잘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학기 초에는 Backyard bash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동아리 소개 이런것도 했고 connect 어플을 깔면 이런 행사들, 셔틀버스 노선, 다이닝 메뉴 등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일 아침마다 학교에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지 이메일을 보내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저는 엄청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1년 미국행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다른 문화권을 여행자가 아닌 학생으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영어가 늘은 것 같습니다. 막 교포나 어렸을 때 조기유학 갔다온 그런 발음이 된 건 아니지만 알고있던 걸 입밖으로 꺼내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딜가나 영어로 대화를 해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런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내가 영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텍스트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제작년으로 돌아가도 교환학생을 갔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미국에서 보낸 9개월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첫 학기는 적응도 하고 모든게 새로워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한 달의 겨울방학이 지나고 두 번째 학기가 되니까 나름 또 편하고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루했습니다. 6개월 좀 넘으니까 되게 한국이 그리워서 맨날 한국가고 싶다고 진담 반 장난 반으로 그랬었는데, 정작 한국에 오니 미국에서 추억은 값진 것 같습니다. 도착 후 해야할 일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곳이든 본인이 신청한 기숙사이든 방을 배정받으면 아마존으로 미리 시켜놨던 택배를 풀고 침대를 정리해야합니다. 이불과 배게를 가져오셨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다 설명해주긴 할 텐데 price commons라는 건물 1층을 가셔서 블루카드(이 학교 학생증)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사진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찍고 금방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카드로 다이닝홀에서 학식을 먹거나, msc 카페나 마켓에서 무언가를 사거나, 기숙사 출입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행위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해 놓고 쓸 때마다 빠져나가는 방식인데, 잔액이 남으면 환불 가능하고, 다 써서 다시 충전해야하면 같은 오피스로 가셔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별거 없고 특히 교환학생은 신분이 보장되어있고 학교라는 기관, 또 돌아오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J1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번달에 짐 싸면서 느낀건데 여름 옷 많이 가져오지마세요 반팔 몇 개만 챙겨오고 더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여기와서 사는게 낫습니다. 몇 번 입을 코트나 부츠 이런건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트 패딩 양털점퍼 부츠 등등 중간에 한국에서 16만원 주고 부쳤었는데 다 버리는거 아닌이상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던지 공항에서 초과요금을 내던지 해야하기 때문에 겹옷은 두 개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차라리 미국에서 사는게 싸요. 미국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처럼 학교 오는데 그렇게 꾸미지 않아서 편한 옷들 많이 챙겨가고 가져올 것들 빼고 버리고 오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백팩 꼭 본인게 필요하면 가져와도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기념품처럼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길게 쉬는 방학들은 추수감사절(11월), 윈터브레이크(12월 중순 종강~1월 말 개강), 스프링브레이크(3월) 이런 일주일이상의 휴일에 여행 틈틈이 다니시고요(어차피 학교 다이닝도 문 닫습니다. 원하시면 미리미리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세요), 학기 중에도 advisement day라던지 하루씩 쉬는 학교에서 휴강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해줄 텐데 아마존프라임 학생으로 가입해서 꼭 반년 무료로 사용하세요. 아마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 기입할 수는 없기에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이 학교로 교환학생 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도 되게 잘 되어있는 편이고 폴리테크닉 대학이라 이공계, 미술 쪽 랩 환경이 되게 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습니다. 여행다니면서나 길가다 몇 번 인종차별도 당해봤는데 처음엔 겁먹었지만 지내다보니 그렇구나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새롭고 즐겁고 아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만큼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고 나만 이방인 같고 서럽고 외롭고 한국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솔직히 공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제 삶에서 값진 경험이라는 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첫 방문이었기에 나름 환상이 있었는데, 지구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이 사람사는 곳이구나 이런걸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 미국은 그렇게 이렇게 말해줘서 간접적으로 깨닫는거랑 본인이 경험하고 직접 깨닫는거랑은 다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귀중한 9개월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고 낯선 환경에서 보고듣고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 분들은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말해서 한 학기만 파견된 주변 학생들을 보면 떠날 때 아쉬워했는데, 저랑 다른 일년 파견된 학생들은 마지막쯤에 지루해하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점을 보면 한국에 온 지금 시점에서는 교환학생으로서의 생활이 그립고 아무나 하지 못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곳이 겨울이 길기에 반년 이후에 지루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과거로 되돌아가도 이 곳에서 두 학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더 생기면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